세계 사료곡물 수급 및 가격전망

(미국사료곡물협회)

세계 총곡물(總穀物) 수급현황

전세계의 1979년도 총곡물생산이 작년보다 4%감소한 15억 1,000만톤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소련은 작년의 2억 3,720 만톤보다 22%나 적은 1억 8,500만톤의 곡물생산에 그칠것이라는 최근의 미농무성(USDA) 발표와 더불어 중공이 대규모 곡물수입국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석유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업생산코스트가 높아지므로 해서 앞으로 소맥을 비롯한 곡물의 국제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아 주목을 끌고있다.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후 70년대 초까지 4반세기동안은 총곡물의 공급과잉추세를 보여왔다. 따라서 곡물을 대량생산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이들 곡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후진국에 무상원조(無償援助)하거나 수입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장기차관(長期借款)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1972년 세계적인 이상기상(異常氣象)은 전례없는 흉작을 야기시켰고 이로인한 세계곡물가격파동은 이러한 대세를 완전히 역전시키고야 말았다. 다시말해서 1960년대에는 연간 세계곡물소비량의 20%내외에 해당하는 곡물재고를 유지해 오던것이 1970년초반부터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1974년에는 10%를 약간 웃돌게 되었다. 이로인해 주요곡물수출국들의 곡물재고수준이 크게 감소된 반면 소련을 비롯한 곡물수입국들의 수입수요가 크게 늘어나 세계의 곡물시장은 제2차 세계대전후 4반세기에 걸친 Bayer's Market으로 부터 Seller's Market으로 돌변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설상가상격으로 석유위기의 영향이 가세되어 1972년후반부터 74년초 세계곡물시장은 곡물류(穀物類)가격이 사상최고 수준으로 폭등하는 이례적인 현상을 보였다. 즉 1972년 후반부터 73년말까지 소맥가격은 3배로 폭등하였고 미가(米價)도 여기에 뒤따랐으며 대두가격(大豆價格)도 24개월 동안에 배(倍)로 뛰었다.

1970년대 중반에서 부터 기상호조(氣象好調)로 세계곡물생산은 크게 회복되었고 세계시장에서의 곡물가격도 안정세를 되찾았다. 특히 최근 2－3년간와 연이은 세계적 대풍으로 세계곡물시장은 문자 그대로 안정기조(安定基調)를 유지하여 왔다. 뿐만아니라 작년도말현재 세계곡물재고는 70년대에 들어와 가장 많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말한 세계곡물시장의 파동과 안정은 곡물생산의 풍흉(豊凶)만으로 만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세계인구의 증가(특히 후진국)와 소득(所得)증대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곡물수요가 꾸준히 증대되었다. 여기서 총곡물 소비량 중에서 간접적으로 소비되는 즉 고급식품인 축산물(畜産物)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직접 식용으로도 사용되지

세계 총곡물 수급현황, 1968－79

(단위 : 백만M/T)

	기초재고(A)	생 산	수 출	소 비(B)	A / B(%)
1968 / 69	187.0	1,075.2	96.6	1,044.0	18.9
69 / 70	218.2	1,088.4	110.8	1,102.1	16.4
70 / 71	204.5	1,100.1	117.4	1,139.2	12.4
71 / 72	165.4	1,189.5	119.9	1,170.2	13.8
72 / 73	183.1	1,156.2	149.2	1,197.7	10.5
73 / 74	141.6	1,259.7	161.3	1,254.1	10.7
74 / 75	146.3	1,212.4	144.5	1,223.1	11.0
75 / 76	133.7	1,238.0	169.5	1,234.5	11.1
76 / 77	137.1	1,354.6	169.1	1,300.7	14.7
77 / 78	191.0	1,327.0	179.5	1,326.7	14.4
78 / 79	191.3	1,429.3	188.4	1,391.6	16.5
79 / 78	229.0				

*자료 : USDA, foreign Agriculture Circular on Graine, June 22, 1979.

세계주요국별 총곡물생산현황, 1960～78

(단위 : 백만M/T)

	60/61～62/63	69/70～71/72	77 / 78	78 / 79
선 진 국	317.6	404.0	480.2	513.2
미 국	168.3	208.7	262.4	271.4
카 나 다	23.8	34.4	42.2	40.9
기 타	125.5	160.9	175.6	200.9
공 산 권	292.3	408.7	474.2	524.2
소 련	126.3	167.4	186.2	227.8
중 공	108.3	166.2	194.4	200.3
기 타	57.6	83.2	93.6	96.0
개 발 도 상 국	244.1	319.2	372.6	391.7
브 라 질	13.8	20.4	21.5	25.3
알 젠 틴	13.2	19.4	23.6	25.7
기 타	217.1	279.4	327.5	340.7
총 계	854.0	1,131.9	1,327.0	1,429.1

*자료 : USDA, World Agricurltural Situation, July 1979.

만)사료곡물 (飼料穀物)의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사료곡물(飼料穀物) 수급현황

사료곡물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1970년대 초반까지는 세계사료곡물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1972년 전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한 전례없는 흉작으로 사료곡물시세가 급변하는 이변을 겪어야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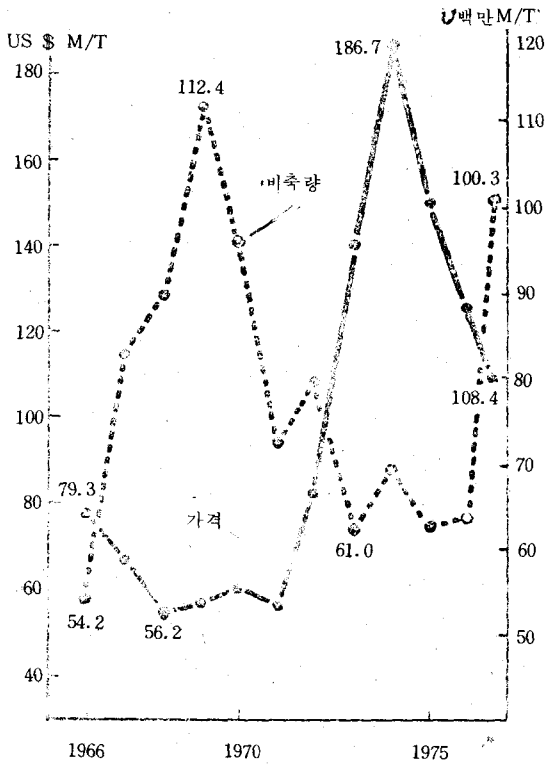
소득의 계속적인 증가에서 비롯한 생활 수준의 향상은 축산물수요를 증대시켰고 이의 주 생산원료인 사료곡물의 수요 또한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그런데다 1972년흉년이 들게 되자 소련을 비롯한 각국의 사료곡물 수입수요가 크게 증대되었다. 따라서 1972 / 73 곡물연도의 세계사료곡물 거래량은 전년도 보다 1,350만톤이나 증가한 6,930만톤으로 늘어났으며 그다음 곡물연도에도 1,150만톤이 증대된 8,080만톤이라는 사상최대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수입 수

세계주요국별 총곡물소비현황, 1960~78

(단위 : 백만M/T)

	60/61~62/63	69/70~71/72	77 / 78	78 / 79
선 진 국	301.9	377.6	387.1	408.5
미 국	139.8	168.9	161.5	174.9
카 나 다	15.1	22.1	21.3	21.2
기 타	147.0	186.6	204.3	212.4
공 산 권	295.7	424.3	523.1	542.5
소 련	119.0	171.8	217.0	221.8
중 공	112.4	169.3	202.0	212.3
기 타	64.3	83.2	104.1	108.3
개 발 도 상 국	255.6	339.1	416.3	440.6
브 라 질	15.7	22.0	28.4	30.1
알 젠 틴	8.1	11.1	11.1	11.4
기 타	231.8	306.0	376.9	399.1
총 계	853.2	1,141.0	1,326.7	1,391.6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ituation July, 1979.



요가 증대되고 사료곡물소비량이 계속 증대되어 주요수출국들의 사료곡물재고가 줄게되어 1973 / 74년말 부터는 전세계의 사료 곡물재고가 년간총소비량의 10%를 밑도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곡물시장에서의 사료곡물 공급거래 및 재고량의 변화는 사료곡물가격을 폭등케하는 주요요인이 되었다. 즉 미국산 3등급 황색옥수수(U.S.No.3 Yellow Corn)의 국제시장가격(CIF, Rotterdam)이 1971년에서 74년에 이르는 동안 톤당 미화 57불에서 144.8불로 무려 2.5배 이상이나 뛰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가격의 폭등에는 당시에 파생되었던 석유위기가 또하나의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다가 최근 몇년동안 연이어 갱신 되어온 미국의 기록적인 사료곡물생산고의 증가와 전세계의 작황호조로 세계사료곡물시세가 안정세를 되찾아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료곡물을 생산한 국가는 미국이며 소비량 또한 가장 많다. 미국은 지난 해에 전세계 사료곡물 생산량인 7억 4,080만톤의 30%에 가까운 2억 1,800만톤의 사료곡물을 생산했으며 세계총소비량 7억

세계사료곡물 수급현황, 1968~79

(단위 : 백만M/T)

	기초재고(A)	생 산	수 출	소 비(B)	A/B(%)
1968/69	84.7	551.6	39.9	547.6	15.5
69/70	88.7	576.1	47.6	575.4	14.8
70/71	89.4	575.7	53.3	592.3	11.6
71/72	72.8	628.8	55.8	614.4	13.4
72/73	86.1	608.9	69.3	626.8	10.3
73/74	68.3	668.3	80.8	672.7	9.5
74/75	63.9	627.9	69.0	632.6	9.2
75/76	58.0	644.7	87.8	646.2	8.7
76/77	56.3	703.4	88.7	683.5	11.1
77/78	76.2	697.4	95.0	688.2	12.4
78/79	85.5	740.8	97.3	729.3	13.3
79/80	97.1				

*자료 : foreign Agriculture Circular on Grains, June 22, 1979.

미국산 옥수수의 국내 및 국제가격추이, 1968-78

(단위 : U. S. $/M/T)

	생산자 수취가격	Chicago	Rotterdam (CIF)
1968/69	42.55	46.10	
69/70	45.70	49.25	
70/71	54.40	56.74	69.10
71/72	42.55	46.49	57.00
72/73	61.86	71.71	77.10
73/74	100.47	112.68	132.90
74/75	118.99	127.76	144.80
75/76	100.08	105.99	128.80
76/77	84.71	96.53	122.00
77/78	79.98		105.80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ituation, July, 1979.
USDA, Agricurltural Statistics, 1978
USDA, foreign agriculture circular on grains, June 22, 1979.
주 : US. No. 3 Yellow Corn 가격임.

2,930만톤의 21%에 해당하는 1억 5,320만톤의 사료곡물을 소비했다. 다음으로 많은 량의 사료곡물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나라는 소련과 중공 등이나 이들은 생산보다 더 많은 량의 사료곡물을 소비하는 다시 말해서 사료곡물의 수입국인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료곡물을 생산하고 있는 미국은 또한 세계시장에 가장많은 량의 사료곡물을 공급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은 그동안 세계사료곡물거래량의 60%이상을 공급해 왔는 바 작년도의 세계시장점유율은 64%였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료곡물을 수입하는 나라는 일본과 소련이다. 작년도 일본의 사료곡물수입총량은 세계전체거래량의 22%나 되는 1,760만톤이었으며 소련은 11%인 1,000만M/T에 달했다. 그리고 중공이 4.5%에 해당하는 400만톤을 수입한 바 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극히 적은 량의 사료곡물을 수입하던 중공이 작년부터 대규모 수입국으로 등장한 것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세계곡물시장의 최근동향과 전망

연이은 세계적 풍년으로 안정세를 유지해 오던 세계곡물정세가 1979년으로 들어서면서 곡물수급(穀物需給)이 점점 어려운 국면에 접어드는 듯한 조짐을 보여왔다.

그 주요요인은 첫째, 지난 겨울에 북미(北美), 소련 및 유럽지역에 극심한 한파(寒波)가 휩쓸었을 뿐만 아니라 봄에는 냉습(冷濕)한 이상기상이 계속되어 주요곡물의 순조로운 작황을 크게 저해했으며, 둘째 최근 몇년동안 곡물에 대한 수입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세계주요국 사료곡물 생산 및 소비현황, 1975－79

(단위 : 백만M/T)

	75 / 76	76 / 77	77 / 78	78 / 79	79 / 80	
생 산	644.7	703.4	697.4	740.8	731 (1만)	687 (2만)
카 나 다	20.0	21.1	22.3	19.7	20	15
호 주	5.6	5.0	4.2	7.1	7	5
알 젠 틴	12.4	16.9	18.1	17.4	17	14
南 阿	7.7	10.3	10.8	7.0	12	8
태 국	3.3	3.0	2.2	3.2	4	3
브 라 질	18.5	19.4	14.4	17.1	20	16
西 歐	81.5	73.1	87.4	94.1	91	86
소 련	65.8	115.0	92.6	105.4	103	83
東 歐	59.4	59.5	59.2	60.0	64	61
기 타	185.3	186.3	182.4	191.9	195	190
미 국	185.1	193.9	203.8	218.0	217	179
소 비	646.2	683.5	688.2	729.3	754	722
미 국	133.9	131.2	136.9	153.2	159	138
소 련	84.4	115.7	108.3	112.7	117	110
中 共	68.8	68.3	68.0	75.0	79	75
기 타	359.1	368.3	375.0	388.5	398	389
기 말 재 고	56.4	76.2	85.5	97.1	76	64

*자료 : USDA, World Grain Situation, Outlook for 1979 / 80, June 22, 1979.

세계주요국 사료곡물 수출 및 수입현황, 1975～79

(단위 : 백만M/T)

	75 / 76	76 / 77	77 / 78	78 / 79	79 / 80	
수 출	76.4	82.6	83.4	87.4	91 (1만)	99 (2만)
카 나 다	4.9	4.6	3.7	3.7	4	5
호 주	3.2	3.3	1.9	2.8	3	4
알 젠 틴	5.4	9.5	11.0	10.5	10	8
南 阿	3.4	1.4	2.8	3.2	3	2
태 국	2.6	2.3	1.3	2.2	2	2
브 라 질	1.4	1.3	1.0	0.	1	0
西 歐	5.0	4.6	6.0	5.7	7	4
소 련	0	2.0	1.0	1.0	1	0
기 타	4.3	2.9	2.5	2.1	4	2
미 국	46.3	50.6	52.1	56.2	62	70
수 입	76.4	82.6	83.4	87.4	91	99
西 歐	24.8	35.8	25.5	24.2	26	31
소 련	15.5	5.7	11.7	10.0	13	19
일 본	13.5	15.9	17.0	17.6	19	18
東 歐	7.8	9.0	8.5	8.7	8	10
中 共	0	0	0.1	4.0	2	4
기 타	14.7	16.2	20.6	22.9	21	23

*자료 : USDA, World Grain Situation, Outlook for, 1978 / 80, June 22, 1979.

있고 앞으로도 크게 증가되리라는 것과, 셋째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곡물을 생산공급하는 미국의 농민들이 농산물 생산의 채산성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곡물가격을 올리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그리고 재작년까지 침묵을 지켜오던 중공이 작년부터 대규모 곡물 수입국으로 등장하였으며 금년작황이 좋지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세계곡물시세 변동에 큰 영향을 줄것이라는 예측 또한 앞으로의 세계곡물 정세를 점치는데 어두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사실 소련은 지난 겨울 극심한 한파에도 불구하고 소맥의 주산지인 우크라이나지역의 1/3이상지역에 눈이 덮히지 않아 대부분의 겨울소맥이 얼어죽는 큰 타격을 받았는 데다 금년 4월이후에 비가 지나치게 많이내려 봄소맥과 봄보리의 파종이 예정보다 늦어졌다. 미농무성(美農務省)이 지난 8월 10일 금년도 8월 1일 현재로 계측한 1979년도 곡물생산추정결과를 보면 소련의 금년도 곡물 생산은 작년의 2억 3,720만톤 보다 22%나 적은 1억 8,500만톤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미농무성의 동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7월초까지만 해도 흉작이 될것으로 예상되던 중공의 금년도 작황이 크게 호전되어 작년도의 3억 470만톤 보다 많은 량의 곡물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곡물을 생산하고 또 가장 많은 량의 곡물을 수출하는 미국(美國)도 금년 중반기까지 곡물생산에 의외의 어두운 무드가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즉 봄철의 냉습(冷濕)한 기후로 봄소맥의 주산지인 North Dakotu, Minnesota주등에서 파동이 극히 부진했으며 주요사료곡물인 옥수수의 경우도 콘—벨트(Corn-Belt)지역의 북쪽에 때아닌 서리가 내리는 등 금년도 전반기의 기상조건이 여의치 않아 지난 7월 1일 현재까지만 해도 작황이 썩 좋은 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기상조건이 매우 양호하게 변동되는 바람에 한달 후인 8월 1일 현재 미국의 옥수수 작황은 한달전보다 월등히 좋게 나타났다. 즉 7월 이후에 계속된 기후 순조로 금년도 옥수수 작황은 7월 1일 현재 예측치보다 7%가 증가한 1억 8,057만톤의 생산예상이 가능할 만큼 좋아졌다.

이는 사상기록적인 생산이었던 작년 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수수 역시 작년보다 4% 늘어난 1,979만톤이 생산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봄철의 기상조건때문에 우려되었던 소맥의 생산도 작년보다 무려 19%나 증가한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식용곡물(食用穀物)인 소맥을 포함한 라이와 쌀 전체로는 작년보다 16%가 증가한 6,490만톤이 될 것이라 한다. 또한 대두 (大豆)도 작년보다 16% 증가한 5,795만톤이 생산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의 8월 1일 현재 금년도 작황은 대풍(大豊)을 예상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세계 총곡물생산량의 50% 가까운 곡물을 생산하고 있는 미국, 중공, 소련 등에 대한 금년도 작황의 발표와 더불어 미농무성은 금년도 8월 1일 현재로 본 전세계의 곡물생산은 7월 1일 현재로 추정한 것보다 3,000만톤이 많은 15억 1,000만 톤으로 발표했다. 이는 작년의 세계총곡물생산량 보다 4%가 적은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미농무성은 지난 7월 1일 현재의 세계사료곡물작황을 기초로 금년도 사료곡물 생산량은 작년도 보다 5%가량 적은 7억 190만톤이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미농무성은 1979/80년도의 전세계총곡물수요가 계속 증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구증가로 인해 직접 식량의 수요가 증가함과 더불어 소득이 증대됨에 따른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료곡물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소련의 경우는 국민에게 약속한 식생활 개선의 일환으로 축산물을 적절히 공급하는 것이 당의 시책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소련 곡물작황의 호조(好調) 또는 부조(不調) 를 막론하고 상당량의 사료곡물을 도입하지 않

79 / 80 세계총곡물 및 사료곡물 생산추정

(단위 : 백만M/T)

	총 곡 물		사 료 곡 물	
	(79 / 80)	(78 / 79)	(79 / 80)	(78 / 79)
카 나 다	37.3	41.4	18.6	20.2
미 국	266.2	273.3	202.7	218.0
西 歐	144.3	154.8	89.2	94.2
東 歐	92.5	95.9	60.7	60.0
소 련	177.2	228.3	85.0	105.4
중 공	249.0	240.5	74.0	71.0
인 도	140.5	142.4	30.0	30.3
파 키 스 탄	14.3	13.0	—	—
인 도 네 시 아	25.1	25.9	—	—
태 국	20.0	19.5	3.5	3.2
南 阿	11.8	9.9	9.9	7.9
터 키	20.0	20.6	7.3	7.3
알 젠 틴	25.2	25.7	16.7	17.3
브 라 질	30.8	27.7	19.1	17.1
호 주	21.1	26.0	5.5	7.1
기 타	206.0	207.3	79.7	82.0
총 계	1,481.3	1,552.2	701.9	741.0

*자료 : USDA, 1979. 7. 1 현재 추정치

으면 안될만큼 사료곡물 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이라 한다. 중공 또한 소련과 비슷한 입장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량의 사료곡물을 수입하고 있는 일본의 수입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 대열에 한국도 포함된다.

이러한 수요의 증가에 소련 등의 작황부조로 금후의 곡물수입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농무성은 1979 / 80년도 소련의 곡물수입량은 그들의 시설한도인 3,600만톤이 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다. 이는 1975 / 76의 2,600톤이래 가장 많은 물량이다. 물론 이중에는 생산량의 사료 곡물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의 70~80%를 미국에서 구입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련은 1978 / 79 곡물연도에도 미국으로 부터 모두 1,500만톤의 곡물을 수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금년 9월 말까지 끝나는 1978 / 79 곡물연도에 소련과 미국이 합의를 본 곡물거래량의 상한선이기도 하다. 또 Swiss시장의 금값이 폭등하여 OPEC국가의 석유달러에 관한 관심이 늘고 있으며 올 여름 가을철의 선박수송계약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이들 OPEC국가의 곡물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시장에서의 수입수요의 증대와 기상부조로 인한 흉작과 자국내의 수요 증대로 주요수출국의 수출이 감소될 것이 확실시되어 1979 / 80곡물연도 세계시장에서의 미국곡물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중 사료곡물의 경우를 보면 작년까지만해도 64%내외에 머물렀던 미국의 세계사료곡물시장점유율이 1979 / 80년에는 7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구구한 세계총곡물 및 사료곡물의 수급예측과 더불어 1979년 초부터 곡물가격은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최근의 옥수수(Chicago가격)가격은 연초부터 계속증가추세를 보여 지난 7월 현재에는 톤당 117불 94센트로서 지난해 말 현재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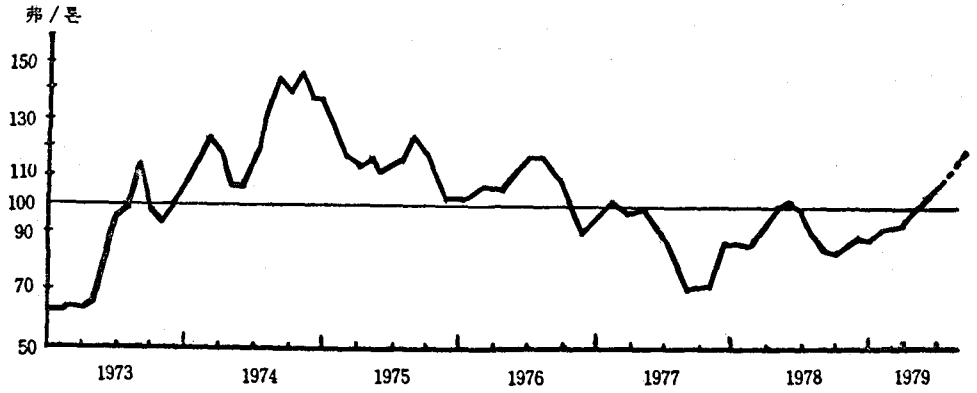
세계주요국 사료곡물시장 점유율 1978~79

(단위 : 백만M/T, %)

	1978 / 79		1979 / 80(측정)	
	(수출량)	(시장점유율)	(수출량)	(시장점유율)
카네다	65.5	63	69.7	70
카나다	3.4	4	4.4	4
호 주	3.1	3	3.4	3
알젠틴	11.5	13	9.9	10
南 阿	3.2	4	2.0	2
태 국	2.1	2	2.4	2
브라질	—	0	0.3	0
西 歐	6.4	7	5.4	5
소 련	1.0	1	—	0
계	87.4	100	97.5	100

*자료 : USDA

불 87센트보다 약 30% 가까이 올랐다. 그러다가 지난 7월부터 미국내의 기상조건이 전례없이 양호해지고 지난 8월 10일 미 농무성이 세계적인 곡물작황을 발표하면서 금년도 미국의 작황이 태풍을 예측케 한다는 발표가 있자 약간 수그러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작황이 반드시 금후의 재고및 가격호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금후의 기상조건이 순조롭더라도 금년도 4/4 분기의 옥수수 가격(Chicago)은 톤당 104불 정도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보는 전문가가 많다.



옥수수가격 변동추세(No 2, Yellow, Chicago)

참고도서 구독안내

「韓國畜産 30年史」

- 4 × 6 배판
- 양장표지
- 496P
- 값 : 3 천원

「草地便覽」

- 4 × 6 판
- 428P
- 값 : 1 천원

발행 및 보급처 : 사단법인 축산단체연합회

(서울 · 중구 양동 44-28, 전화 : 28 - 2363)